김호귀 교수의 한국선 톺아보기 ❻ 구산선문의 선사상 – 법맥 인식의 전환

▶ 한줄 요약
보리달마로부터 시작된 중국 선종은 조사에서 조사로 전승되는 법맥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여러 선종에서는 전등사서를 편찬하는가 하면 날조까지 감행하기도 했다. 이런 법맥의 날조는 구산선문에도 영향을 끼쳤다.



날조된 중국선 법맥 구산선문에 영향



구산선문의 하나인 희양선문의 종찰 문경 봉암사 전경 모습.

중국에서 선종은 6세기 초반의 보리달마로부터 그 연원을 삼는다. 그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면면히 지속되어온 까닭은 나름대로 그에 상응하는 요소가 있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정법안장의 계승을 강조함에 따라 조사로부터 조사로 전승되는 법맥의 형성과 그 강조를 들 수가 있다. 이를 위하여 여러 선종에서는 나름대로 법맥에 관련한 자파의 전등사서(傳燈史書)를 편찬하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여의치 못한 경우에는 소위 날조까지도 비일비재하게 감행하였다. 그럼으로써 법맥에 대한 역사에서 그럴듯한 허구성이 가미되었는가 하면, 오히려 날조된 사실에 근거하여 보다 세련된 선종의 역사가 전개되었고, 나아가서 날조된 법맥이 나름대로 명분을 확보하는 결과로 드러나기도 하였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선종에서 법맥의 날조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과 의의는 결코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또 하나의 역사를 형성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선종에서 내세우는 법맥의 형성은 불교가 중국에 수입된 이후로 중국문화의 수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것은 불교의 수입 이전부터 중국문화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었던 유교문화에서 장자(長子)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전승해오던 가문중시의 문화와 그에 따른 정통(正統)과 방계(傍系)의 문제 등과 결부되어 있었다. 불교가 중국에 수입되던 즈음에는 불교는 하나의 외래종교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중국의 사회 및 문화 속에 정착하여 모든 사람의 일상생활에서 세련되고 화려하게 전개되고 있던 유교문화에 비하여 대단히 초라한 모습이었다. 그와 같은 불교가 중국의 사회에서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중국이라는 현지의 문화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기원을 전후하여 시작된 불교의 중국 정착, 나아가서 6세기 무렵부터 시작된 선종의 역사에서 자파가 현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모종의 방편과 기관과 장치가 반드시 필요했다.

그 가운데 하나의 방법은 유교문화의 가문중시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선종 조사들의 계보로서 소위 전등사서를 편찬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방식은 불법의 상승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장치였을 뿐만 아니라 선종의 측면에서는 자파의 전승과 정통성의 홍보를 위해서도 필요불가결한 것이었다. 선종에서 출현한 그 시작은 천태종에서 자파의 24대조사설, 〈부법장인연전(付法藏因緣傳)〉 및 〈달마다라선경(達摩多羅禪經)〉 등을 원용하여 8세기 후반에 남종에서 〈단경〉의 편찬에 즈음하여 주장한 과거칠불 · 인도의 28대조사 · 중국의 6대조사 등 불조(佛祖) 40대설로 나타났다. 불(佛)로는 비바시불(毘婆尸佛)을 비롯하여 가섭불까지 7불, 조사(祖師)로는 마하가섭(摩訶迦葉)으로부터 보리달마(菩提達磨)에 이르는 인도의 28조, 보리달마로부터 조계혜능(曹溪慧能)에 이르는 6조사설 등이 780년을 전후로 하여 출현한 〈단경〉에서 그 명칭이 처음으로 확정됨으로써 정법안장의 정통성이 조계혜능(曹溪慧能)에게 전승되었다는 주장이었다.

물론 그 과정에는 역사상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은 충분히 감안해야 할 문제이다. 그러면서도 혜능의 남종계통에서는 이것을 소위 정통의 증명으로 활용함으로써 이후 801년에 지거(智炬)에 의하여 출현한 〈보림전(寶林傳)〉에서 불조들의 법어까지 수록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정통의 확립이라는 의의를 보여주었다. 이후로 오대시대에는 정(靜)과 균(筠)에 의하여 952년에 〈조당집(祖堂集)〉으로 계승되었고, 송대에는 도원(道原)에 의해 1004년에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이 편찬됨으로써 전등사서로서 부동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불조의 법맥에 대한 전승의 강조는 구산선문의 조사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다. 그 가운데 희양산문(曦陽山門)과 동리산문(桐裏山門)의 경우에는 전법조사에 대한 법맥에 대하여 눈여겨볼 만한 점이 엿보인다. 희양산문의 경우에 봉암사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런데 그 개산조사로 간주되어 있는 도헌국사(道憲國師, 824~882)는 봉암사와 인연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현계산(賢溪山) 안락사(安樂寺)의 지증대사(智證大師)로 통칭되고 있는 점도 법맥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곧 현재 구산선문의 법맥에서 도헌국사의 법맥은 백엄양부(伯嚴楊孚, ?~917) 그리고 손제자에 해당하는 정진긍양(淨眞兢讓, 878~956)에게로 전승되고 있다. 최치원이 쓴 '지증국사비명' 에 의하면 도헌은 중국선종의 제4조 쌍봉도신 · 법랑 · 준범 – 혜은 · 도헌으로 계승되어 있다. 그리고 중국선종에서 혜능 · 청원행사 · 석두희천 · 약산유엄 · 도오원지 · 석상경제 · 곡산도연 · 정진긍양으로 계승되었다. 그러나 정진국사 긍양의 비문에서는 혜능 · 남악회양 · 마조도일 · 창주신감 · 쌍계혜소 · 현계도헌 · 백엄양부 · 정진긍양으로 바뀌어 전한다. 이와 같은 점은 당시에 중국선종에서 소위 정통으로 간주되고 있던 남종의 법맥에 상승(相承)시켰다는 허구가 강하게 부각되어 있다.

中선종, 법맥 강조하는 풍조유행
날조에 가까운 법맥 만들어 전승
마조 문하선 가공 인물 만들기도
〈법문서귀〉서 날조 · 허구성 해명
"희양 · 동리의 법맥에 오류 보여"

한편 동리산문의 경우는 개산조가 적인혜철(寂忍慧哲, 785~861)인데, 그 사법계통은 두 가지 흐름을 보여준다. 첫째는 혜철의 사법제자는 태안사 계통으로는 ㅁㅁㅁ여(ㅁㅁㅁ如)이고, 이후 광자윤다(廣慈允多, 864~945)에게로 전승되었다. 둘째는 혜철의 사법제자는 옥룡사 계통으로는 선각도선(先覺道詵, 827~898)이고, 이후 동진경보(洞眞慶甫, 869~947)에게로 계승되었다. 이들 두 가지 계통의 법맥에 대해서는 후자의 경우 역사적인 사실을 아예 무시한 날조인 까닭에 그대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그 증거로서 도선국사의 비문을 들고 있지만, 그 비문 자체가 도선국사 입적 이후 252년 후에 제작된 것임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학계에서 논의된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도선국사와 동진경보의 법맥은 실제로는 동리산문의 선법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와 같은 날조에 가까운 법맥이 만들어지고 전승되어 온 것은 법맥에 대한 막연한 신뢰와 더불어 그것을 바탕으로 자파의 입지를 주장하려는 것이었음은 불문가지이다.

이처럼 구산선문의 조사들에 대하여 역사적인 사실과 상당히 먼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은 비단 구산선문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중국의 선종사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은 비일비재하게 출현해왔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노골적인 모습으로 출현하여 실제로 중국의 선종사에 큰 영향을 끼쳤던 모습은 마조도일의 계통에서 나타난 반야다라(般若多羅)의 예언에 관한 것이었다. 반야다라는 보리달마의 스승으로 인도의 제27대 조사이다. 반야다라는 보리달마에게 전법하면서 '그대의 먼 후손 가운데 망아지 한 마리가 출현하여 천하를 짓밟아버릴 것이다.' 는 유훈을 내려주었다. 그런데 마조의 후손들 가운데는 무모하게도 이 예언을 현실적으로 구체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바로 망아지는 마조도일이고, 천하를 짓밟아버린다는 것은 마조의 법손이 선종의 세력을 장악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따라서 선종의 제종파는 마조의 법맥으로부터 유래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발상으로부터 소위 법맥을 날조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실제로 중국선종에서 조계혜능 · 청원행사 · 석두희천 · 천황도오(天皇道悟) – 용담숭신 · 덕산선감 · 설봉의존의 법맥이 출현하였다. 설봉의존으로부터 다시 하나는 운문문언의 법맥이고, 다른 하나는 현사사비 · 나한계침 · 법안문익의 법맥이다. 그런데 마조문하의 후손에서는 반야다라의 예언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 일환으로 가공의 인물을 내세웠는데 그가 바로 마조도일의 문하인 천왕도오(天王道悟)이다. 그리고 이 천왕도오가 다름아닌 천황도오와 동일한 인물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럼으로써 천황도오의 문하에서 분파한 운문문언의 운문종(雲門宗)과 법안문익의 법안종(法眼宗)이 모두 마조도일의 법맥에 속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로써 보면 결과적으로 선종오가 가운데 조동종(曹洞宗)만 제외하고 네 종파가 모두 마조도일의 법맥으로부터 출현한 셈이 되어 반야다라의 예언이 부분적으로 실현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법맥의 날조와 그에 대한 주장은 당시부터 상당한 힘을 지님으로써 이후 명대 말기 청대 초기에 이르도록 중국의 선종사에서 아무런 의심이 없이 전승되어 왔다.

이에 대하여 명말 청초에 백암정부(白巖淨符)는 〈법문서귀(法門鉤究)〉를 저술하여 그와 같은 주장은 법맥의 날조일 뿐만 아니라 명백한 허구라는 것을 해명함으로써 중국의 선종사에서는 일단락되었다. 이에 천왕도오는 날조이고 천황도오가 실제의 인물이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수용되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중국선종의 상황을 아무런 의심이 없이 수용했던 조선시대 선종계에서는 날조된 법맥의 주장이 한국의 선종사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심지어 중국의 선종사에 이미 천왕도오라는 인물은 허구적인 인물이라는 것이 결판났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그것을 외면하고 기존의 날조된 법맥의 전통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그 결과 조선 중기 청허휴정의 〈선가귀감(禪家龜鑑)〉을 비롯하여 환성지안의 〈선문오종강요(禪門五宗綱要)〉, 나아가서 백파의 〈선문오종강요사기(禪門五宗綱要私記)〉 및 기타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한국선에서도 지속되었다.

1500여 년에 이르는 오랜 선종의 역사에서 이와 같이 법맥의 정통성에 대한 강조는 뿌리 깊게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법맥을 강조하는 전통이 선종사에서 순기능의 역할을 해온 것은 물론이다. 선종의 전통이 계승되고 유지되어 온 측면뿐만 아니라 선종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는 점도 그렇다. 그러나 그 역기능의 역할도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점이 있다. 그것은 순수한 선법의 형성과 전개, 발전보다도 오히려 당시의 물리적인 세력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는 측면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날조 혹은 허구의 역사는 모든 역사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다만 처음에는 허구와 날조로부터 시작되었을지라도 그것이 오랜 세월동안 정착됨으로써 또 하나의 역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까지는 부정할 수가 없다. 따라서 구산선문에 보이는 몇 가지 법맥의 혼란은 지금에 와서 고스란히 돌려놓을 수는 없는 점이 있다. 설령 그것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어쩌면 그와 같은 날조와 허구까지도 선법의 역사로서 인정해야만 보다 보편적이고 다양하게 그 본의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동국대 HK교수〉



